

개념 혼성과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한 은유 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김정은, 구세민, 신권익, 엄해영*

- 차례 -

1. 서론
2. 은유의 개념 혼성, 언어적 강제 결합의 관련성
 - 2.1. 은유와 개념 혼성의 관련성
 - 2.2. 은유와 언어적 강제 결합의 관련성
3. 은유 표현 지도의 세 가지 원리
 - 3.1. 사고력 강조의 원리
 - 3.2. 통합 지도의 원리
 - 3.3. 전형성 극복의 원리
4. 개념적 혼성과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한 은유 표현 지도 방안
 - 4.1. 1단계: 개념적 혼성을 통한 은유 이해
 - 4.2. 2단계: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안내된 은유 생성
 - 4.3. 3단계: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은유 생성
5. 결론

[국문 초록]

은유는 예술적 언어의 수사적 표현 기법을 넘어 사고나 개념 도구로서 인간의

* 김정은(제1저자): 서울가림초등학교 교사, jungeun895@sen.go.kr, 구세민: 서울전동초등학교 교사, 0110ksm@hanmail.net, 신권익: 서울대길초등학교 교사, onjeschr@gmail.com, 엄해영(교신저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umhy@snu.ac.kr

의사소통 과정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체계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은유는 여전히 비유적 표현으로 다뤄지고 있다. 은유는 학생들에게 내용 생성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어휘에 담긴 담화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두 대상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은유의 개념은 개념적 혼성의 개념과 다르지 않으며, 개념적 혼성은 은유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전형성을 극복하고 효과적이고 참신한 표현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은유 표현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세 가지 원리를 고려하여 개념적 혼성과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한 은유 표현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지도 방안을 통한 글쓰기에서 필요한 풍부한 내용 생성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개념 혼성, 은유적 사고, 강제 결합, 은유 표현, 지도 원리

1. 서론

우리는 은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Lakoff와 Johnson(1980)은 『삶으로서의 은유』를 통해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나 언어에 은유가 얼마나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역설하였다. ‘시간은 돈’, ‘행복은 위’, ‘애정은 따뜻함’ 등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예를 통해 우리의 사고와 언어가 근본적으로 은유로 이루어져 있음도 보여주었다. 일상적 개념 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며, 은유는 우리의 사고와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도구이다.(나익주·노양진 역, 2006)

은유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사고와 언어,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화적 행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은유 표현을 통

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참신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은유를 문학적 표현의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나아가 확장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는 은유를 시나 소설 등 문학에서 사용하는 수사법의 차원으로만 다루고 있다. 은유가 우리에게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과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은유 표현 지도는 확장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은유의 본질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이다. 은유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물들의 유사성을 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은유에는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의 비유사성이 공존하며, 비유사성을 통해 원관념은 확장되고 변화한다. 은유 교육을 통해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성과 비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은유는 사고와 언어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은유 교육은 사물과 현상의 범주화와 추상화에 대한 학습, 나아가 새로운 발상에까지 이르는 사고의 도구를 형성하는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은유 표현은 은유 이해의 측면과 은유 표현의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은유 이해의 측면에서는 개념적 혼성을, 은유 표현의 측면에서는 언어적 강제 결합을 지도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개념적 혼성은 두 대상의 속성을 탐구하고 유사성을 찾아 이해를 넓혀가는 인지 과정으로서, 은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나아가 은유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언어적 강제 결합을 은유 생성 과정에 활용하면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두 낱말 사이의 유사성을 탐구하고 은유를 생성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표현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은유’는 사고 혹은 개념 체계로서 확장된 범위의 은

유이다. 이 글은 초등학교 학습자들이 은유를 경험을 인지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익힐 수 있도록 돕고자, 개념적 혼성과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한 은유 표현 지도 방법을 세 가지 은유 지도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로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은유와 개념 혼성, 언어적 강제 결합의 관련성

2.1. 은유와 개념 혼성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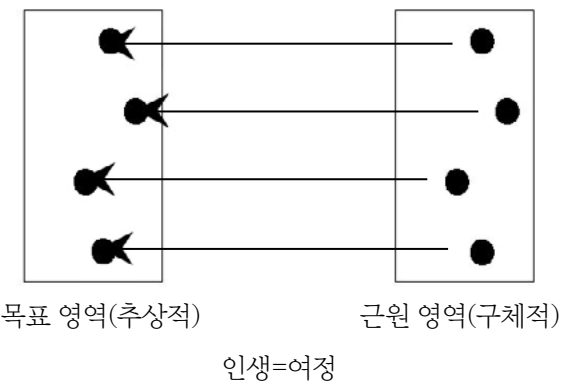
문학에서 은유는 사물을 설명할 때 다른 사물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수사법 중 하나를 의미한다.(구인환, 2000). 은유를 나타내는 ‘Metaphor’는 그리스어 ‘metaphora’를 어원으로 하는데, 이는 ‘초월’을 의미하는 meta와 ‘전하다’, ‘운반하다’를 의미하는 pherein의 합성어로, ‘본래 가지고 있는 사물의 의미를 초월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은유를 최초로 정의한 시학(천병희 역, 2017)에서는 은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은유는 유에서 종으로, 또는 종에서 유로, 또는 종에서 종으로, 또는 유추에 의해 어떤 사물에다 다른 사물에 속하는 이름을 전용하는 것이다.”

김종도(2004)는 은유는 모방(mimesis)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수사적 기술로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은유가 통찰력을 성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까지 주장한다. 20세기 초반, 인지언어학이 등장하면서 은유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Lakoff와 Johnson(1980)은 은유가 단순히 시나 문학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생활 속에서 일종의 ‘사고’나 ‘개념화’로서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은유는 우리의 개념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인지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경험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이다.¹⁾ 이들에게 있어 은유의 본질은 구체적인 근원 영역에 의해 추상적인 목표 영역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근원 영역의 구조는 목표 영역에 사상(mapping)되어 목표 영역이 이해되고 경험된다.(김동환, 2004)

개념적 은유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사이의 영역횡단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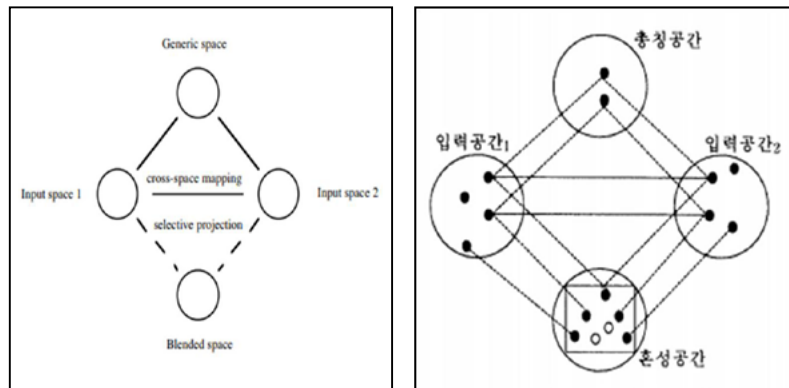


<그림 1> 개념적 은유 구조

이러한 은유를 통한 이해와 경험의 과정은 Gilles Fauconnier와 Mark Turner의 개념적 혼성 이론과도 연관성이 있다.(이향근, 2018) 개념적 혼성 이론은 인간의 의미 구성 방식을 인지 과정의 산물로 설명한다. 의미가 구성된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 과정의 산물이며, 개념적 혼성의 결과

1) 엄해영(2014)은 현대의 은유는 인간 인식의 심층을 구성하며,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언어와 사유를 집약하므로, 창작 주체의 개별 경험은 은유를 통해 시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념적 혼성 과정은 3개의 인지과정 즉 입력 공간 구축, 공간횡단 사상, 입력 공간에서 혼성 공간으로 투사를 통해 구성된 강력한 인지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념적 혼성 작용의 결과로 개념적 통합(혼성) 망이 생성된다.(김동환, 2002) 혼성 공간은 두 입력 공간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며,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배경 및 문맥적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 두 입력 공간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아 형성된 공간이다. 사람마다 의미 구성이 달라지는 이유는 개념적 혼성의 하위 인지과정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2〉 개념적 통합 망(the four-space model)

우리는 각자만의 의미 구조로 입력 공간(Input space)과 혼성 공간(Blended space)을 구축하며, 각자만의 의미 구성 방식으로 새로운 다중적 의미의 범주를 생성한다. 개념 혼성의 개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은유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개념 혼성을 통해 은유의 범위는 시 감상으로 대표되는 문학 감상의 범위를 넘어 일상 속의 은유, 즉 삶의 은유로 확장된다. 확장된 은유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고, 대상들 사이의 유사성을 찾는 능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며, 표현의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 구성과 발상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은유는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다원화시키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2.2. 은유와 언어적 강제 결합의 관련성

강제 결합(force relationships)이란 창의성 발달을 위한 기법의 하나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나 사물을 관련지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박은영, 2015; 구상, 2015) 강제 결합은 주로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시각전달을 위한 아이디어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결합의 대상을 언어에 한정하여 ‘언어적 강제 결합’으로 명명하고 이를 은유 교육, 특히 은유를 활용한 표현 지도 측면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언어적 강제 결합은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두 단어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단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표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령 신문 기사에서 잘라낸 여러 낱말을 주머니에 넣고 아무것이나 2장씩 고르게 한 뒤, 고른 낱말들을 ‘A는 B이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TV’와 ‘달’을 뽑았다면, ‘TV는 달이다.’ 또는 ‘달은 TV이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두 낱말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 이를 글쓰기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성하는 방법과 달리 언어적 강제 결합법은 학습자들에게 내용 생성의 단서를 제공하므로, 내용 생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두 대상을 관련지어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표현력과 설득력, 창의력을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정리하면, 언어적 강제 결합은 두 대상의 속성에 대해 심도 있게 관찰하고 유사성을 찾아 글쓰기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풍부한 내용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김용규, 2017)

박은영(2015)에서는 강제 결합법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한 결과, 글의 양과 일관성, 소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구상(2015)에서는 창의적 사고법으로서의 강제 결합법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관련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낮은 대상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전혀 새로운 결과물로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이전부터 익숙하게 사용해오던 방식으로 사고하려는 “유사성의 법칙(Law of Similarity)”이 적용되고 익숙한 사고에 한정될 수 있다. 원래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초안 충동’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초안 충동 본능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협소하고 전형적인 것에 머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David Niven(2014)은 일부러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개념을 이어보는 활동을 통하여 초안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전미영 역, 2016) 다시 말해, 강제 결합법을 이용하면 색다른 사고 방향을 촉진하여 창의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은유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때 유사성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경우 탐색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대상의 피상적인 특성만을 생각하게 되어 대상의 속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거나 유사성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적 강제 결합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풍부한 은유 표현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은유 표현 지도의 세 가지 원리

3.1. 사고력 강조의 원리

‘시간은 돈’과 같은 은유는 무엇을 더 돈보이도록 하기 위해 쓰인 수사적 은유가 아니라 어떤 사회나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들과 정합성을 갖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회·문화적 필연성을 가진다. 이러한 은유는 ‘사회·문화적 은유’라고 부를 수 있으며(김용규, 2017)²⁾, 사회·문화적 은유는 수사적 은유보다 먼저 생겨났음에도, 국어 교육에서 은유는 문학의 수사적 기법의 하나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은유는 문학적 기법에서 나아가 우리의 일상적 사고나 언어를 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된다. 단순히 문학에 사용된 은유를 이해하는 데에 그쳐서는 은유 지도를 통한 충분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은유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인지과학자 Gilles Fauconnier와 Mark Turner에 의하면, 은유는 원관념을 구성하는 정신 공간 1과 보조관념을 구성하는 정신 공간 2에서 대응 요소와 비대응 요소가 함께 혼성 공간으로 투사되어 만들어진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관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비유사성을 통해 의미를 변환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의미가 창발 된다. 은유 표현 지도에서는 서로 다른 사물들의 속성을 살펴 대응 요소와 비대응 요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목표 대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사고의 과정과 파악한 대상의 속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사고 행위를 강조해야 한다.

즉, 은유 표현 지도에서의 사고력 강조의 원리는 학습자들이 은유를

²⁾ Lakoff와 Johnson은 이와 같은 은유를 가리켜 ‘1차적 은유’라 칭한 바 있다.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활동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사물이 가진 속성들을 충분히 탐색하고, 서로 다른 속성들을 연결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은유 표현을 사용해 보는 경험과 다른 학습자들과 자신이 만든 은유 표현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통해 학습자들의 사고 행위를 촉진하고 사고력을 계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해 자신이 구성한 은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표현의 적절성을 함께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도 역시 학습자들에게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2. 통합 지도의 원리

두 대상 사이의 속성을 파악하여 유사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그 대상을 포함하는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은유는 우리의 사고와 언어를 구성하는 기반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지도될 때 효과적으로 지도될 수 있다. 통합적 지도의 원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은유를 문학 영역에서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와 문법 영역과 통합하여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통합 지도의 원리는 은유 이해와 표현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은유 표현을 지도할 때 교육 장면과 실생활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통합 지도의 원리에 따라 쓰기와 문학 영역을 통합하여 은유를 지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쓰기는 사고력 계발의 중요 수단으로, 쓰기 과정에서 은유를 활용하도록 하면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하는데 그리고 의도하는 바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유 표현을 글 쓰기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은유의 효용성을 경험하게 되므로 은유 표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에도 효과적이

다.

국어의 어휘와 어휘 체계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인식과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이병규, 2012) 언어적 강제 결합의 과정에서, 관계성이 낮은 두 낱말을 결합하여 표현하기 위해서는 낱말의 속성을 탐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어 어휘 체계에 담긴 문화를 감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두 낱말을 연결하여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감지한 국어 문화를 사용해 보는 경험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은유 지도와 문법의 통합 지도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은유 표현을 지도할 때에는 이해와 표현의 통합, 교육 장면과 실생활의 통합 또한 추구해야 한다. 은유에 대한 이해 없이 은유 표현을 생성할 수 없으며, 은유 표현을 생성해 보는 경험은 은유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은유 표현 지도를 통해 사고를 명료화하고 정교화 하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유 이해와 은유 표현 지도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우리는 수많은 은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행복은 위’, ‘슬픔은 아래’, ‘애정은 따뜻함’과 같은 표현들이나, ‘침대는 과학’, ‘속도가 생명’과 같은 광고 표현들은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접하고 있는 은유이다. 이렇게 실제성 있는 은유를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면 학습자들의 은유 이해와 표현에 도움을 주며, 학습의 동기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합 지도의 원리는 은유 지도에 있어 영역 간, 기능 간, 그리고 교육 장면과 실생활 간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합적 지도의 측면에서는 단순히 어떤 활동을 연결하여 지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며 통합에 의한 의도적인 교육적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3.3. 전형성 극복의 원리

은유는 대상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때 효과적이다.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표현, 일상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포함하는 참신한 은유 표현은 발신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수신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은유 표현 지도는 표현의 전형성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생산하는 것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은유 표현 지도의 원리를 전형성 극복의 원리라고 명명하였다.

전형성은 여러 속성 중 가장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지칭하기 때문에 전형성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심리학자 David Niven(2014; 전미영 역, 2016)은 한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는 최초의 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초안 충동이라 하는데, 어떤 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 전형적인 생각의 범위에서 사고가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것이다.

처음 떠오른 아이디어는 무조건 제외하기, 일부러 전혀 관련 없는 두 개념 이어보기 등과 같이 사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약간의 제약을 주는 방법을 통해 초안 충동, 다시 말해 전형성을 극복할 수 있다. David Niven은 실험 과정에서 피험자들에게 어떠한 제약도 주지 않고 외계인을 상상하여 그려보라고 했을 때는 피험자들이 지구 생물들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의 외계인을 상상하여 그렸다. 한편 ‘날 수 있고’, ‘비늘이 있는’과 같은 제약을 받은 집단은 여태껏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독창적인 그림들을 그렸다. 이 실험은 일정한 제약이, 그중에서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조합보다 서로 연관성이 낮은 낯선 조합의 제약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대상들의 속성을 탐색하여 유사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전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은유 표현 지도의 방법으로 활용한 언어적 강제 결합 역시 낯선 낱말들의 연결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두 개의 낯선 낱말을 뽑아 강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은유를 생성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은유 표현 지도의 전형성 극복의 원리는 은유 표현 지도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고, 참신한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

4. 개념적 혼성과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한 은유 표현 지도 방안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안한 세 가지 ‘은유 표현 지도의 원리’를 고려하고, ‘개념적 혼성’과 ‘언어적 강제 결합’을 은유 표현 지도의 방법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3차시 분량의 지도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1> 은유 표현 지도 단계

	단계	단계별 주요 활동
1	개념적 혼성을 통한 은유 이해	시어를 중심으로 개념적 혼성을 활용한 은유 이해 방법 학습하기
2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안내된 은유 생성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하여 함께 은유 생성하기(낱말 카드 활용)
3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은유 생성	개별적 은유 생성 및 글쓰기(확장된 낱말 카드 활용)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글쓰기에 앞서 무작위로 뽑은 시어나 낱말의 속성을 파악하고 낱말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보도록 하여 사고력

강조의 원리를 반영하였다. 시를 읽어보며 은유를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은유 표현을 만들어 글을 쓰도록 하는 등 ‘문학’과 ‘쓰기’, ‘문법’ 영역의 통합 그리고 이해와 표현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은유 표현을 사용하여 참신한 문장을 만들어보고 이를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경험을 하도록 지도 방안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전형성 극복의 원리를 고려한 것이다. 거시적인 틀에 서뿐만 아니라 한 차시 수업의 흐름에서도 앞서 논의한 세 가지 은유 표현 지도의 원리를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쓸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창의성이 있는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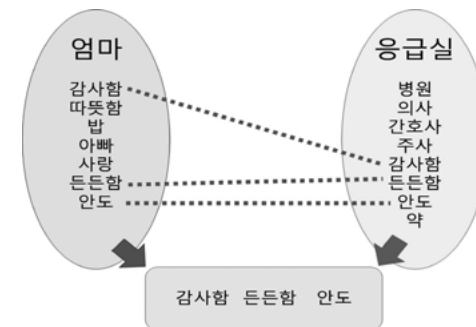
4.1. 1단계: 개념적 혼성을 통한 은유 이해

〈표 2〉는 첫 번째 차시로 시어를 중심으로 개념적 혼성을 활용하여 은유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 먼저, 시 『우리 엄마』를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시에 등장하는 ‘엄마’와 ‘응급실’이 가진 속성과 두 시어 간의 유사성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본다. 시에 나타난 은유를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구성한 것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은유를 인식하는 장르가 시이며 은유 표현의 효과가 잘 드러나는 문학 장르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두 시어의 유사성을 통해 시 전체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서 은유 표현이 가진 효과와 개념적 혼성을 형성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알아본 것을 활용하여 마지막 활동에서는 시 『길』의 시어를 활용하여 은유를 이해하는 방법을 연습해 본다.

〈표 2〉 개념적 혼성을 활용한 은유 이해 방법의 학습 과정

학습 목표		시어를 중심으로 개념적 혼성을 활용한 은유 이해 방법 학습
학습 과정	활동 1	· 시 『우리 엄마』 읽어보기
	활동 2	· ‘엄마’와 ‘응급실’의 속성과 두 시어 간의 유사성을 찾아 연결 짓는 방법 시범 보이기 - 시에서 중요해 보이는 시어 찾기 - 각 시어의 속성을 찾아 나열하기 - 유사성 있는 속성끼리 연결하기 · 연결된 속성을 통해 의미 구체화하기 - 두 시어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시 내용 설명해 보기
	활동 3	· 시 『길』을 읽고 시어의 유사성을 찾아 연결하기 - 시 『길』을 읽으며 중요해 보이는 두 시어를 찾고 속성 찾아 나열해 보기 - 유사성이 있는 속성을 찾아 연결해 보기 - 두 시어의 관계를 생각하며 시 내용 설명해 보기

활동 2가 1차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활동이며, 시어의 속성과 시어 간 유사성을 찾아보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교사의 시범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엄마’와 ‘응급실’이 가진 속성을 찾아 유사성을 발견하는 과정의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시어의 속성 찾아 연결하기

<그림 3>과 같이 ‘엄마’라는 시어를 읽고 떠오르는 속성을 생각나는 대로 적고, ‘응급실’이라는 낱말이 가진 속성 역시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 각각의 낱말 아래에 적는다. 이때 학생들은 같은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떠올리는 속성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나, 개인의 배경 지식에 따라 떠올린 속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 해야 한다. 만약 ‘엄마’에서 감사함, 따뜻함, 밥, 아빠, 사랑, 든든함, 안도 등에 대한 속성을 떠올리고, ‘응급실’에서 병원, 의사, 간호사, 주사, 감사함, 든든함, 안도, 약 등의 속성 떠올렸다면 두 낱말에서 떠올린 공통적인 심상을 찾아 그림과 같이 연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낱말의 속성에서 공통된 속성으로 ‘감사함, 든든함, 안도’를 도출하였다면 그림 하단에 있는 공간에 써넣는다. 두 시어에서 유사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엄마는 응급실이다.’라는 문장으로 은유 표현을 만들 수 있으며, ‘엄마는 응급실이다. 왜냐하면 둘 다 감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엄마를 응급실로 표현하여 감사한 마음과 든든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와 같이 은유를 활용하여 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낱말에서 떠오르는 속성을 찾고 비교하는 과정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사용하는 데 고차적 사고력이 필요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두 대상의 속성을 찾고, 두 낱말이 가진 속성에서 유사성을 도출하여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시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시범 후에는 학생들은 은유 표현이 사용된 다른 시를 제재로 이해한 내용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다.

4.2. 2단계: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안내된 은유 생성

시어의 속성과 시어 간 유사성을 찾아 은유를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한 후에는 <표 3>과 같이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하여 함께 은유를 생성하

는 것을 목표로 안내된 수준에서 은유 생성 연습을 해 볼 수 있다.

<표 3>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안내된 은유 생성의 학습 과정

학습 목표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하여 함께 은유 생성하기
학습 과정	활동 1	· 은유 표현 생성하는 방법 보이기 - 낱말 주머니에서 두 낱말을 임의로 뽑고, 낱말이 가진 속성 이야기하기 시범 보이기 - 뽑은 두 낱말의 유사성을 찾는 방법 시범 보이기 - 두 낱말로 문장을 만들고, 만든 문장을 설명하는 시범 보이기
	활동 2	· 은유 표현을 같이 만들어 보기(모둠 활동) - 모둠원과 낱말 주머니에서 두 낱말을 임의로 뽑고, 낱말이 가진 속성 이야기해 보기 - 뽑은 두 낱말의 유사성을 찾아 이야기해 보기 - 두 낱말로 문장을 만들고, 만든 문장을 설명해 보기 · 우리 반 친구들과 은유 표현 공유하기(전체 활동) - 모둠에서 만든 은유 문장을 발표하고 설명하기 - 다른 모둠의 발표 듣고 의견 나누기
	활동 3	· 은유 표현을 같이 만들어 보기(짝 활동) - 짝과 낱말 주머니에서 두 낱말을 임의로 뽑기 - 뽑은 두 낱말의 속성과 유사성 이야기해 보기 - 두 낱말로 문장을 만들고, 만든 문장을 모둠원들에게 설명하기 - 모둠원들의 발표를 듣고 의견 나누기

1차시에서는 은유를 통해 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2차시에서는 낱말을 무작위로 뽑고, 전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뽑은 낱말의 속성과 유사성을 찾아 은유를 표현해 보는 데 강조점이 있다.

활동 1에서는 교사가 낱말 카드가 담긴 낱말 주머니에서 두 개의 낱말을 임의로 뽑고, 두 낱말이 가진 속성을 이야기해 본 후, 낱말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일련의 시범을 보인다. 이때 학생들에게 낱말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낱말 주머니에서 무작위로 낱

말 카드를 뽑도록 하는 까닭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낱말 사이의 유사성을 찾기 위하여 낱말이 가진 속성을 탐구해 보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향상되며,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내용 생성 능력, 문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낱말 주머니에 담은 낱말 카드의 단어는 <표 4>와 같이 5, 6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시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쓴 낱말도 선정할 수 있다. 교과서의 어휘는 학생들의 어휘력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쓴 낱말은 학생들의 삶과 관련성이 높고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실제성이 높은 어휘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표 4> 낱말 주머니 속 낱말 카드

교과서	단원	시 제목	지은이	낱말 카드
국어 5-1가	2. 작품을 감상해요	『출렁출렁』	박성우	지각, 학교, 집
		『꽃』	정여민	꽃, 얼굴, 바람, 햇살, 꽃잎
국어 5-2나	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기계를 더 믿어요』	한상순	시장, 거스름돈, 은행, 지갑
국어 6-1가	1. 비유하는 표현	『뽕튀기』	고일	봄날, 꽃잎, 나비, 함박눈, 폭죽, 냄새
		『봄비』	심후섭	해님, 악기, 달빛, 큰북, 작은북, 냇가, 연못, 연주
		『풀잎과 바람』	정완영	풀잎, 친구, 바람
국어 6-2가	1. 작품 속 인물과 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공, 탄력, 최선
국어 6-2나	8. 작품으로 경험하기	『헤어질 때』	조영미	헤어짐, 눈빛, 마음, 향기

교사의 시범을 통해 은유 표현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에는 단계적으로 모둠원과 함께 그리고 짝과 함께 은유 표현을 생성해 보도록 한다. 은유 표현을 모둠원과 함께 공유하고 그 문장에 관해 설명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고 다양한 은유 표현을 접해 볼 수 있다.

4.3. 3단계: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은유 생성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해 은유 표현을 함께 만들어 본 후에는 <표 5>와 같이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하여 자기가 만든 은유 표현들로 한 문단 정도의 글 쓰기를 할 수 있다.

<표 5>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은유 생성의 학습 과정

학습 목표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하여 함께 은유 생성하기
학습 과정	· 낱말 카드 만들기 - 교과서의 시 중에서 낱말을 골라 낱말 카드로 만들기 -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낱말을 찾아 낱말 카드로 만들기 - 만든 낱말 카드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 낱말 카드로 ‘문장 만들기’ 게임하기 ① 만든 낱말 카드를 책상 위에 뒷면이 보이게 늘어놓기 ② 순서를 정하여 낱말을 두 장씩 뒤집고, 뒤집은 카드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어 말하기 ③ 만든 문장에 대해 두 낱말의 유사성을 잘 설명하면 카드를 가져가고, 그렇지 못하면 낱말 카드를 원래대로 놓기 ④ 카드가 모두 없어졌을 때,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김

학 습 과 정	활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말 카드를 뽑아 은유 만들기 -만든 낱말 카드를 모아 낱말 주머니 만들기 -낱말 주머니에서 낱말카드를 네 장 꺼내어, 낱말의 속성과 유사성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보기 -짜에 자신이 찾은 낱말의 속성과 두 낱말 사이의 유사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의견 나누기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하며 은유 표현 만들기 · 자신이 만든 은유 표현을 모둠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활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만든 은유 표현들을 사용하여 한 문단 정도의 글 쓰기 · 은유 표현을 사용하여 쓴 글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소감 나누기

3차시에서는 낱말 카드를 뽑고, 전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뽑은 낱말의 속성과 유사성을 찾아 생성한 은유 표현을 사용하여 한 문단 정도의 글을 쓰는 데 강조점이 있다. 활동 1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5, 6학년 교과서의 시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낱말을 모아 낱말 카드를 만들게 된다. 학생들은 낱말이 가진 속성, 낱말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낱말을 선정하고 낱말 카드를 만든다. 낱말 카드를 만든 이후에는 낱말 수준에서 문장 수준으로 은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문장 만들기’ 게임을 한다. 먼저 학생들은 짝과 함께 낱말 카드를 책상 위에 뒷면이 보이게 늘어놓는다. 그리고 순서를 정하여 낱말을 두 장씩 뒤집고, 뒤집은 카드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어 말한다. 이때, 만든 문장에 대해 두 낱말의 유사성을 잘 설명하면 해당하는 카드를 가져가고, 그렇지 못하면 낱말 카드를 원래대로 뒤집어 놓는다. 카드가 모두 없어졌을 때,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된다.

활동 2에서는 낱말 카드를 뽑아 낱말 카드 사이에서 어떤 은유를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게 된다. 학생들은 낱말 주머니에서 낱말카드를 4장 꺼내어, 낱말의 속성과 유사성을 가능한 한 많이 찾는다. 짝에게 자신이 찾

은 낱말의 속성과 두 낱말 사이의 유사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 그리고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하며 은유 표현 만든다. 활동 3에서는 자신이 만든 은유 표현들을 사용하여 한 문단 정도의 글을 쓰게 된다. 낱말의 속성을 탐색하고 은유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쓸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것과 다른 참신한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개념적 혼성과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한 은유 표현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은유는 수사적 기법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경험을 인지 체계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의 은유이다. 은유는 단순히 ‘시’라는 문학 표현 기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나 개념 도구로서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 은유는 사고 과정과 일상적 행동 방식에 깊숙이 내재한 개념 체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는 은유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낱말의 속성과 낱말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파악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사고력 강조의 원리와 영역 간 통합, 이해와 표현 과정의 통합과 교육 장면과 실생활 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통합 지도의 원리, 사고력과 창의력을 촉진할 것을 강조하는 전형성 극복의 원리가 그것이다.

세 가지 원리를 고려하여 제시한 3단계의 은유 표현 지도 방안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개념적 혼성을 통한 은유 이해의 단계로 시어를 중심으로 개념적 혼성을 활용한 은유 이해 방법을 학습한다. 2단계는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안내된 은유 생성 단계로 낱말 카드를 활용하여

언어적 강제 결합을 활용한 은유를 짝, 모둠, 학급 전체와 함께 생성한다. 3단계는 언어적 강제 결합을 통한 은유 생성 단계로서, 확장된 낱말 카드를 활용하여 개별적 은유를 생성하고 자신이 만든 은유 표현들을 사용하여 한 문단 정도의 글을 쓰게 된다. 이 글에서 제안한 은유 표현 지도 방안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내용 생성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신한 표현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Metaphors Expression Using Conceptual Blending and Language forced relationships

-Focused on the 5th and 6th graders in the elementary school-

Kim, Jeong-Eun(Seoul Gawon Elementary School)

Ku, Se-Min(Seoul Jeondong Elementary School)

Shin, Gwon-Ik(Seoul Daegil Elementary School)

Um, Hae-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etaphor extends beyond the rhetorical expression technique of artistic language to a system that deeply influences the human communication process as an idea or conceptual tool. Metaphor is still treated as a metaphor in the field of education. Metaphor can provide students with clues to content creation and function as a tool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discourse community in the vocabulary. The concept of metaphor, which forms meaning based on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objects, is not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conceptual blending.

This study presented three principles to consider when teaching metaphor expressions. Taking into account the three principles, a metaphorical representation mapping method was proposed using conceptual blending and Language forced relationship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ap method will enhance the effect of generating the necessary rich contents in writing.

Key words : conceptual blending, metaphorical thinking, forced relationships, metaphor expressions, teaching principle

[참고문헌]

□ 단행본

- 교육부, 『초등학교 국어 5-1가 교과서』, (주)미래엔, 2019, 60-91면.
 교육부, 『초등학교 국어 5-2가 교과서』, (주)미래엔, 2019, 212-233면.
 교육부, 『초등학교 국어 6-1가 교과서』, (주)미래엔, 2019, 30-51면.
 교육부, 『초등학교 국어 6-1가 교사용 지도서』, (주)미래엔, 2011.
 교육부, 『초등학교 국어 6-2가 교과서』, (주)미래엔, 2019, 32-83면.
 교육부, 『초등학교 국어 6-2나 교과서』, (주)미래엔, 2019, 290-313면.
 구인환, 『신고 문학개론』, 삼지원, 2000.
 김동환, 『개념적 혼성 이론』, 박이정출판사, 2002, 59-115면.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박이정출판사, 2013, 142-192면.
 김용규, 『생각의 시대』, 살림, 2017, 153-197면.
 김주식 역, 『은유 소개』, 한국문화사, 2008.
 김종도, 『은유의 세계』, 한국문화사, 2004.
 나익주 · 노양진 역,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출판사, 2006.
 양병호 외 3인 역,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한국문화사, 2014.
 양병호 외 3인 역, 『인지문체론: 텍스트의 언어와 인지 분석』, 한국문화사, 2017.
 양해립 외 4인(2011), 『인지문화란 무엇인가』,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전미영 역,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 부키, 2016.
 정기철, 『상징, 은유 그리고 이야기』, 문예출판사, 1966, 61-154면.
 천병희 역,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숲, 2017.

□ 논문 및 기타 자료

- 구 상, 「강제결합법에 의한 복합적 개념의 창의적 조형방법의 모색」, 『한국과학 예술포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5, 9-18면.
 김동환, 「개념적 혼성과 의미구성 양상」, 『언어과학연구』제21집, 언어과학회, 2002, 45-68면.

- 김동환, 「개념적 혼성에 입각한 은유의 의미구성」, 『담화와 인지』 제 22집, 담화·인지언어학회, 2004, 31-58면.
- 김영도, 「'개념적 혼성'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방안」, 『교양교육연구』 제7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53-58면.
- 박은영, 「강제결합법을 활용한 이야기 구성 활동이 쓰기 저성취학생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대 석사학위논문, 2015.
- 엄해영, 「은유와 환유의 통합 적용을 위한 시 창작 교육 시론」, 『새국어교육』 제10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315-340면.
- 이병규, 「국어 문법 교육의 원리 탐구」, 『새국어교육』 제90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29-56면.
- 이향근, 「인지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시 문학의 텍스트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집,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1-18면.
- 임철성, 「토론 지도의 원리와 실제 -토론의 본질과 토론 지도」, 『화법연구』 제 18집, 한국화법학회, 2011, 103-130면.

접수일 : 2019. 07. 24 총평일 : 2019. 08. 19 게재확정일 : 2019. 08. 23